

구분	강북영광교회 주일강단
날짜	2024년 6월 2일
제목	절대 미션을 주신 그리스도
본문	누가복음 19:11~27

녹취

• 서론

우리는 이 절대 미션을 받게 되었다는 말이다. 가장 복음적으로 해석을 잘한 것이 있다. 이게 뭔가 하면 무슨 소리 입니까 할지 모르겠다. 칼빈주의, 장로교는 칼빈주의를 교리로 신봉한다. 우리도 장로교라고 하죠. 개혁신교단 중 많은 교파가 있는데 장로교가 있다. 칼빈이 종교개혁 할 때 개신교 개혁 완성했다. 그것을 칼빈주의라고 한다. 장로교가 신봉하는 칼빈주의라고 할 때 칼빈주의가 성경을 복음을 가장 해석을 잘했다. 뭔가 하면 내 직업에 대해서, 또 내 기능에 대해서 해석을 잘했다. 우리나라만 해도 조선시대까지 전 세계 거의 비슷했는데 중세시대까지도 그랬고 개혁신교회 이후부터 조금 달라졌는데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망할 때까지도 그랬다. 해방되고도 그랬다. 그런데 복음 들어오고 나서 달라졌는데 거기에 기여한 게 칼빈주의다. 무슨 말인가? 내 직업, 기능, 내가 운전을 한다, 청소를 한다, 박사가 되어서 교수가 되어서 정부 요직에도 있고 한다. 어떤 직업이든 기능이든지 복음적으로 가장 잘 해석한 게 있다. 바로 다름 아니라 내가 가진 직업, 기능, 내가 일하는 곳, 현장, 직장 그것이 곧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교지다. 하나님 나라 위한 현장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절대 미션의 현장이 내 삶의 현장, 직업과 기능이다. 칼빈주의에서 강조한다. 칼빈주의가 이것을 강조하면서 하다 보니까 기능 가진 사람, 기능을 통해 부자가 된 사람, 이 배경 속에 사실은 종교 개혁과 더불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즉 이것은 세속사에서 말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복음

의 빛의 경제 시각에서 보면 빛의 경제가 어마어마하게 부어지는 계기가 되고 이를 통해 전 세계 복음화 되었다. 거기에 쓰임 받은 나라가 영국이고 어느 나라고 뒤에는 미국과 미국교회가 그 축복과 언약의 대열 속에서 증거를 누렸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은 중직자 되시는 장로님들, 중직자들, 산업인들 할 것 없이 우리 램넌트들도 붙잡아야 될 언약적 미션이 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다. 비유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것이 왜 중요한가? 저와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직장에 다니거나 기능이 있거나 개인 사업을 하거나 산업을 한다. 그것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또 결혼했다. 램넌트 남자 여자 램넌트 서로 사랑하고 어찌고 저찌고 언약 확인하고 했다. 왜 결혼하는가? 왜 가정을 이루는가? 공부는 왜 하는가? 대구시장 지금 어느 시장이신데 그분도 믿는 분이더라. 못된 말을 해서 그런데 그런데 그분은 전도자는 아닌 것 같다. 안수집사님까지 직분 받았다고 공개했는데 전도, 선교, 대구 시장하면서 대구시를 복음화하고 대구시가 모델이 되어서 나라도 살리고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복음화하는데 대구가 기여하도록 믿는 시장이 그렇게 했다, 진짜 그것은 전도자 제자겠쥬. 그렇게 안 하죠. 거의 다 묵혀두고 있다. 종교개혁 이후에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 산업인들을 일으키시고 거기에 마침 그게 이루어진 게 산업혁명이다. 영국이 처음에 쓰임 받았다. 세계복음화 주역이었다. 그들이 경제로 세계 선교하고 복음을 증거 했다. 오늘 예수님께서 또 비유로 말씀하신다. 이것은 비유의 말씀인데 가르치신 것이다. 이제 예수님 곧 십자가 지시고 그리스도의 중요한 핵심 사역 앞두고 계실 때의 시간표다. 그때 중요한 비유를 또 말씀하셨다. 말씀을 하시며 가르치셨다.

오늘 보니까 은 열 므나 비유를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또 가르치신 말씀이 있다. 달란트 비유가 있는데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임금이 맡기고 가서 나중에 돌아와서 달란트 맡은 자에게 일꾼 제자들에게 계산을 했다. 그 비유와 유사한데 심지어 비유로 말씀하신 말씀을 쌍둥이 비유라고 하기도

한다.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맥락은 같은 말씀이다. 오늘 우리가 예배시간에 이 말씀 속에서 답을 붙들어야겠다. 중직자, 장로님 여러분, 산업인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램넌트들 어제도 금토일시대 마지막 시간에 인도받는데 감사가 나왔다. 감사했다. 우리 램넌트들 진짜 붙잡아야 된다. 무슨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가?

• 본론

1. 절대 미션을 주신 그리스도

첫 번째다. 절대 미션을 주신 그리스도다.

1) 시작 -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절대 소원을 발견하고 잡아야 된다.

우리의 시작은 무엇인가? 무엇이든지 시작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요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하는 복음의 전도, 선교의 이 대열 속에 있는 하나님 자녀다. 누구든지 시작이 있는데 우리는 시작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언약, 하나님의 절대 소원을 붙잡아야 된다. 그게 시작이다.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사업과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할 필요 없다. 그런데 안 해도 되는데 그것을 절대 언약, 절대 미션이라고 잡고 가면 일단 길이 다르다. 출발 시작도 다르지만 시간이 갈수록 길을 갈수록 틀린 길이다.

777 망대 기도 중에 성삼위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그랬다. 성삼위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예비해 주셨는데 그 길을 찾아야 하잖아요? 그 길 찾기 위해서 10가지 비밀 알고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여기에서 일단 틀리게 된다. 절대 언약도 아니고 절대 하나님의 소원도 아니고 절대 계획도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소원이 아닌데 그것을 절대 미션, 언약이라고 잡고 충성한다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평생에 길을 가보세요. 시작도 틀리고 시간 갈수록 길이 틀리다. 그것을 헛수고라고 한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언약 그것을 발견하고 받드

시 붙잡아야 된다. 오늘 모든 성도님 여러분, 램넨트까지 이것을 잡아야 된다.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잡아야 된다. 그렇게 되면 끝이다. 이것을 발견하고 붙잡지 못해서 의미 없고 해매는 인생이 된다. 평생 헛수고하고 속아서 사단의 심부름하다가 나중에 망한다. 그러면 헛수고잖아요? 그것이 무엇인가 할 때에 복음, 그리스도, 주께서 말씀하신 언약을 절대 언약으로 잡고 절대 미션으로 발견하고 그 길을 가야 된다. 그 미션이 바로 절대 미션인데 또 절대 언약도 된다.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 세계 선교하는 것이다. 오늘 이 비유도 여러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설교도 다각도로 할 수도 있고 많은 설교들을 많은 목사님들이 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다락방은

2)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갔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갔다고 말씀했는데 여기 귀인은 우리의 왕 되신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왕 위를 받으려고 먼 곳으로 나라로 갔다. 십자가 사역을 하시고 부활하시고 재림주, 심판주로 오실 것을 말씀한다. 그런데 종들을 불러서 열 명의 종에게 열 므나를 나눠줬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요 전도제자인 주의 종들 우리에게 한 므나씩 맡겼다는 말은 절대 미션을 주셨다. 그 미션은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 그 므나를 미션을 절대 미션을 주셨다. 그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우편에 앉아계시는데 재림주로 심판주로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것을 표현하기를 왕 위를 받아서 다시 오신다 이렇게 표현했다. 그 종들에게 한 므나씩 열 명에게 맡겼다는 것은 우리를 말한다.

3) 미션을 주신 것이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미션을 주셨는데 이렇게 미션을 주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해석하기 나름이죠. 이것은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하라. 증인 되어서 온 천

하 만민, 5천 종족까지 로마까지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고 제자 삼고 각 나라도 살려라.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그게 절대 미션인 한 므나 주신 것이다. 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행 1:3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데 거기에 인도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237 5천 종족 전 세계 온 천하 만민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여 나라 살리겠죠? 지역 살리겠죠? 그 속에 사는 마귀 자녀들 사탄의 망대 속에 아무것도 모르고 멸망 속에 과거 망대 속에 있는 자들 살아나겠죠? 말하자면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 하라는 것이다. 그게 절대 미션이고 각 종들에게 한 므나씩 나눠준 것이다. 물론 므나는 이스라엘의 화폐 단위인데 은이다.

또 행 1:8에는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말씀하셨다. 보좌의 능력,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오직 성령충만 받고 권능 받아서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 하라는 말이다. 또 우리는 해석하기 나름이다. 그것 하면서 램넨트 운동, 램넨트에 눈 떠라, 발견해라. 램넨트 운동해라, RUTC 운동해라. 램넨트를 차세대 선교사로 일으켜라. 램넨트를 절대 망대로 세워라. 그 역시 한 므나씩 나눠준 미션이다.

또 말씀한다. 요즘 나오는 말씀인데 성경에 진짜 있다. 미처 발견하지 못했네 저도 그랬다. 성전의 기능 세 가지 뜯, 우리 교회도 세 가지 뜯 갖추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다. 세 가지 뜯 이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우리도 갖춰야 된다. 그다음에 세 가지 뜯 사역 중에 아이들의 뜯, 램넨트 사역을 말한다. 본격적으로 금요일 시대를 열어 램넨트를 본격적으로 일으키자. 램넨트를 미래 망대로 미래를 치유하고 살릴 미래의 재앙을 막고 치유하고 살릴 미래 망대 똑같다. 우리가 받은 절대 미션이나 앞으로 우리 램넨트들이 받아서 인도받게 될 미션 똑같다.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다. 그리고 치유하고 살리라는 것이다. 이 절대 미션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다.

저는 다락방 하고 나서 제일 감사한 점 이게 명확하다. 다락방의 류목사님 비롯해서 주의 종들 목사님들이 모든 제

자들이 강조하는 바이지만 우리가 강조해서 하는 게 아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다. 한 개를 놓치거나 안 해서 한 개를 안 해서 망하고 한 개만 정확하게 답 나고 결론 나고 끝이 나고 한 개만 하면 참된 응답, 참된 성공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소원, 계획 이루게 되어있다. 그게 오직 복음이고 오직 복음 전하는 오직 전도, 선교 한 개다. 이것을 놓쳐서 이것을 잃어버려서 사탄의 심부름하다가 망한다.

2. 왕위를 가지신 그리스도가 미션을 주신 것에 대해서 반드시 결산하신다.

두 번째다. 절대 미션 확인했는가? 오늘 설교는 제가 굉장히 기도 많이 한 주간 했는데 쉽게 하는 것이다. 복잡한 게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열 므나, 한 므나씩 주의 종들에게 나눠준 것처럼 절대 미션 주셨다. 그것 확인하고 발견하고 잡으면 끝이다. 다락방에 감사한 점,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복음 전도하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요즘 나오는 용어로 표현하면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 끝이다. 교회가 다른 것 할 일 없고 종직자, 성도님, 사명자 여러분들 할 일 다른 것 없다. 그것 하는데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다 채우신다.

두 번째다. 왕 위를 가지신 우리의 왕 그리스도 미션을 주신 것에 대해 반드시 결산, 계산하신다. 이것은 새겨 들어야 된다. 왕위를 받아서 그 왕이 임했다. 즉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심을 말씀하는데 반드시 미션을 주신 것에 대해 므나에 대해서 결산하신다.

1) 그리스도의 왕 됄을 싫어하는 자들,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 (눅 19:14)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 그리스도의 왕 됄을 싫어하는 자들이 있다. 비유를 드는데 굳이 넣어놨다. 그 당시 특히 바리새인들과 온 유대인들을 말한다. 지금도 똑같다. 사탄의 심부름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왕 됄을 싫어하고 왕이 주시는 절대 미

선 싫어한다. 사탄이 제일 싫어한다. 그런 자들 많다. 속으면 안 된다. 선행, 봉사, 열심히 교제하고 인간관계 좋고 교회 와서 잘하고 밖에 가서 잘하고 술 사주고 밥 사주고 인기 있고 돈 쓰면 좋아한다. 나쁠 것 없다. 그런데 그것은 본질이 아니다. 교회와 서도 마찬가지다.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선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교회가 절대 언약 확인하고 전 교회가 마가다락방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가 되고 원니스 되잖아요? 그러면 끝나는데 그것을 가장 싫어한다. 우리 교회도 여기만 안 속으면 되는데 그래서 지지고 북고 싸우는 것이다. 이 왕 됄을 싫어하는 자가 있다. 그게 유대인이고 바리새인들이다. 지금도 있다.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 됄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했다. 그것을 딱 집어넣어놨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했다. 어떻게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냐? 어떻게 우리의 왕이냐? 그렇게 싫어한 것이다. 얼마나 싫어하고 미웠던지 거부, 참 빛 우리의 그리스도 왕 되신 그리스도 빛이신데 참 빛이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비치기 시작하는데 거부, 안 받는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왕 됄을 원하지 않는다. 그리스도를 가장 싫어한다. 그래서 하는 게 핍박이다. 복음 놓친 모든 종교인과 교권, 정치권력이 이상하게 똑같다. 사탄의 심부름하기 때문에 똑같다. 가장 싫어하는 것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선교하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 가장 핍박한다. 환란, 핍박, 고난 마가다락방 초대교회 300% 무능했는데 300% 짓밟았다. 핍박했다. 그러나 복음 막을 수 없다. 복음 증거하는 제자들을 거기 항복한 자 없다. 참 제자는 절대 미션 가진 참 제자는 항복하지 않는다. 죽으면 순교할지언정 없다.

2) 왕 되신 그리스도의 절대 미션을 거부했다. 완전 사탄의 망대가 되어 미션을 거부했으며 사탄의 망대가 되어

앞장서서 복음을 막음, 결국 유랑민이 되어 전 세계에 흩어졌다.

당연히 왕 되신 그리스도의 절대 미션 받지 않았다. 완전히 반대로 사탄의 망대 되어 반대의 일을 했다. 그래서 실패했다. 비참하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절대 미션 받은 것 우리가 받을 뿐만 아니라 언약으로 잡았다. 내가 잡고 하는 데는 절대 제자가 되는 것이다.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요 전도 제자요 누가 뭐라고 해도 환란, 핍박 이말 저말 얼마나 많은가? 흔들리지 않고 일심, 전심, 지속, 로마서 16장 제자들,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안디옥교회 제자들과 같이 브리스가 부부와 같이 일심, 전심, 지속한다? 최고 축복받는다. 하나님 나라의 미션 당연히 거부했다. 오직 복음 증거하는 일에 핍박했다. 하나님 나라 위한 전도, 선교 절대로 반대했다. 그래서 망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된 바리새인과 후대들 어떻게 되었는가? 결국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 되어 전 세계 흩어졌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뜻은 이루어졌다. 저와 여러분과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깨닫고 답 나고 오직 1,3,8 답 나고 끝나고 이 복음의 증인 되어야 하잖아요? 절대 미션, 화투 제자, 술 제자, 무슨 제자 다 있다. 춤 제자. 어느 영상에서 봤는데 성균관대 어느 교수가 있는데 이공계 계통의 전문성 발휘하는 학과더라. 이 분은 유학 안 가고 한국 박사다. 한국에서 공부해서 박사 되었다. 전 세계 내놓을만한 실력 갖췄다. 대단하더라. 자부심이 대단하다. 그래서 대학원생들 석사, 박사 하는 거기에 자기 밑에 배우겠다고 온 자들 제자 삼더라. 그런 제자 다 있다. 우리는 그런 제자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제자, 그 제자로 절대 미션을 받았는데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지어낸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직접 가르치시고 언약으로 주신 것이다. 오직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감람산 언약, 갈보리산 언약, 오직 1,3,8 이게 우리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3) 그러나 미션을 받은 우리들, 열 므나를 받은 종들이다. 최고 미션, 최고 축복의 대열이다.

우리가 받은 최고의 미션 바로 이것이다. 열 므나를 종들에게 한 므나씩 각각 나누어줬다. 우리가 그 므나를 받은, 절대 미션을 받은 자다.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이 말은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복음 증거하라. 제자 삼으라, 렘넌트 키워라, 237 나라 5천 종족에 세계 선교하면서 하라 그 말이죠.. 재림주로 오셔서 심판주로 오셔서 이러할 때 미션 받은 전도자들 한 므나씩 받은 것에 대해 계산하신다. 이게 좀 걱정이 된다. 저와 여러분이 일심, 전심, 지속 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혹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한 므나 받은 한 사람 한 므나를 집어넣었다. 수건에 싸두었다. 혹 이러지 않을까 이게 확인해 봐야 된다.

왕의 왕관을 받아서 왕이 되어 돌아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종을 불러 계산하는데 첫 번째 종이 나왔다. 주인이여, 당신의 한 므나로 열 므나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제가 지극히 작은 일이 충성하였다. 어디 많이 들은 말씀이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와 똑같다. 한 므나로 열 므나를 남겼다. 이 말은 전도, 선교하는데, 프랑스도 선교하고 237 나라 선교하고 유럽 선교하고 대구, 칠곡도 살리고 그중에 제자도 남기고 불신자 300명 영접운동 300명 영접, 30명 제자 삼고 그중에 중직자 나오고 자기보다 더 멋진 그리스도의 제자 삼았다. 교회화도 시켰다. 그 사람은 응답받아 제자로 세워지는데 장로님 중직자 되고 렘넌트 발판 되더라 그런 열매를 열 므나를 남겼다. 저와 여러분도 이 축복의 대열 속에 서게 되고 들어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잘하였도다 주인이 칭찬했다. 착한 종이라고 했다. 반대말이 있다. 악한 종이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열고을 권세를 차지하라고 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결산받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저도 걱정이다. 다락방 30년 일심, 전심, 지속하는데도 응답받고 신나고 재밌을 때 있지만 전도가 잘 안되고 다락방도 우리도 그렇다. 여러분도 현장에 제자 못 삼고 그렇다. 여러 가지 상황 알고 보면 핑계다. 재밌는 말씀도 들었다. 류목사님 어느 부교역자로 교회 섬길 때 주보를 매주 하는데 주보 잘하는 어

느 교회 장로님 인쇄소에 맡기니까 늘 잘해주죠. 정확하게 하고. 그런데 어느 교회 중직자 장로님 중에 자기 친척이 있는데 그 인쇄소에 맡기라고 압력을 넣어서 할 수 없이 그 교회 장로님이 우기면 어떻게 하는가? 할 수 없이 장로님 친척 면데 차로 한 시간 가야 하고 맡기고 찾아와야 된다. 얼마나 힘든가? 주일날 전 토요일에 얼마나 바쁘게 우리 같으면 토요일에 핵심 가서 산업선교, 핵심, 흠어진 제자들을 말씀 듣죠, 함께 램넌트를 위해 기도해야 하죠, 얼마나 바쁜가? 그런데 주보 가져왔는데 오자가 너무 많다. 틀린다. 안 믿는 불신자다. 그러니까 교회 용어를 이해 못한다. 그래서 담임목사님 주일 설교에 본문, 제목을 줬는데 열 고을 권세 이렇게 제목을 했는데 모르니까 열 고을 전세라고 오타를 써서 주보를 가져왔다고 한다. 웃지 못할 일도 들었는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절대 주신 미션 확인하고 절대 미션을 수행하는 열 므나를 남기는 이 축복의 대열 속에 저와 여러분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종이 또 나왔다. 주인이여 당신의 한 므나로 다섯 므나를 남겼나이다. 다섯 배로 남겼다. 바울은 100배, 천 배 므나를 남겼다면 바울 밑에 있는 자매 뵈뵈 브리스가 부부, 식주인 가이오, 에바브로디도, 디모데는 다섯 므나 남긴 것이다. 역시 주인이 칭찬했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다섯 고을을 차지하라.

세 번째 종이 왔는데 한 므나를 가지고 왔다. 그런데 이 종은 장사하지 않았다. 한 므나를 수건에 싸서 뽕뽕 묵혀 두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미션을 저버린 종이다. 즉 복음 운동, 전도 운동에 전도, 선교의 미션 저버린 것이다. 일단 주인을 오해했다.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제가 무서워했습니다.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데 제가 무서워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은 미션을 저버렸다. 주인이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한 종이 라고 말했다. 책망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한 달란트 받은 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다. 여러분,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전도제자의 삶, 전도자의 삶 언약의 여정 안 하면 악한 종의 길에 설 수밖에 없다. 안 하니까. 이렇게 말한다. 그렇다면 한 므나를 은행에 맡겨 이자라도 불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가 와서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을 텐데 그것도 하지 않았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했다.

4) 전도자의 축복

전도자의 축복은 우리가 이해하는데 참으로 이상하다. 한 므나 빼앗아다가 열 므나 남긴 자에게 주어라. 희한하죠? 또 주께서 말씀하신다.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 결론 - 그리스도의 절대 미션을 받은 우리

결론이다. 그리스도의 절대 미션을 받은 우리다. 우리 교회다. 우리 다락방이다. 제가 다락방을 사랑하고 여러 가지 사건, 문제도 있지만 기도하는 이유 오직 그리스도를 발견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 증거하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 절대 계획, 소원 그것을 붙잡았다. 열매가 있든 없든, 잘하든 못하든 이 언약의 대열 속에서 언약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전도자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이 대열 속에 인도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미션을 받았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모든 주의 성도님 여러분, 중직자 여러분, 램넌트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복음 증거하는 오직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 우리 교회는 이면 계약인 오직 프랑스 선교, 오직 유럽 복음화, 대구, 칠곡 복음화. 이 미션 절대 미션을 수행하는 열 므나를 남기는 다섯 므나를 남긴 전도제자와 같이 그리스도의 종, 전도제자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하는 작품 남기는 전도자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집안 이야기해서 죄송하다. 복음을 선교사님으로부터 빛을 받은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가정가문 다 복음화 시켰다. 그 축복으로 우리 후대인 제가 그 덕으로 당연히 축복 속에 대열 속에 서 있다. 어느 날 태어나보니 그렇다. 할아버님 의성군내에 고향은 물론이고 의성 복음화에

크게 작품 남겼다. 하나님이 빛의 경제를 주셨다. 과수원 하는데 부자가 되게 하셨다. 정미소 하는데 부자가 되게 했다. 그래서 그 돈은 우리 부자다 한 게 아니고 고향 교회 건축은 물론이고 복음 전하는데 절대 헌신하고 그다음에 의성 군내에 35개 의성 군안에 면이 많잖아요? 35개 교회를 건축했다. 복음 전하는데 빛을 남겼다. 작품을 남겼다.

우리도 로마서 16장의 바울과 함께한 제자들 중직자들이 7 별명 작품 남겼는데 특별히 3 가지, 자매 뵈뵈 보호자다.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 동역자다. 식주인 역할 한 가이오 나와 온 교회와 모든 전도자들의 식주인 가이오. 세계복음화 로마복음화하는데 즉 작품 남겼다. 저와 여러분도 대구, 칠곡 살리는데 또 프랑스 살리는데 유럽 53개 나라 살리는데 나아가 237 5천 종족 살리는데 절대 미션 변하지 않고 일심, 전심, 지속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작품 남기는 오직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의 증인 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승리하는 모든 귀한 성도님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 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절대 미션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절대 미션을 받고 그 이전에 절대 언약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소원을 확인하고 답을 내고 결론으로 끝을 내고 이 축복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님들, 장로님들과 모든 중직자들, 램넌트들까지 또다시 확인하고 또 점검해 보고 또 결론으로 내고 또 끝을 내고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 열 므나 남기고 다섯 므나 남긴 충성된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하는 이 빛을 발하여 하나님 나라 이루는 절대 작품 남기는 축복의 모든 주의 귀한 사명자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